

2017년 5월 14일 “가족: 물 댄 동산이 되어 주세요”(사 58:9b~11)

<도입>

폴 투르니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에서 인용.

“... 루시앙 보베 박사의 말 대로 가정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이란 처음부터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애써 성취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지난 주에 이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가정을 통해 얻는 축복을 살피겠습니다.

**[1]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9 절**

명예를 씌운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컨트롤 하는 것을 말함.

손가락질은 비판(판단)하는 것.

판단을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때 멈추게 됩니다. 사람과 상황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 즉, ‘좋은가, 싫은가’ ‘예쁜가, 미운가’ ‘잘하냐, 못하냐’ 등의 판단을 멈출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하여 자기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반응하면 됩니다.

‘네가 어떤 축복을 받을지 기대돼’ ‘너의 장점이 더욱 발전되기 바래’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렴’ ‘지금 모습 그대로 참 좋아’ 이것은 판단을 멈춘 말입니다.

허망한 말이란 속아서 하는 말, 고통을 주고 불행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즉, 진리에서 떠난 말입니다. ‘네가 맨날 그렇지’ ‘제대로 하는게 뭐 있어?’ 자기 기준에 입각한 말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다면 앞서 ‘결혼(가정)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한 구절 더 보고 이것을 살피겠습니다.

**[2]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10 절)**

“**주린 자**” 배고픈 사람을 뜻합니다. 심정이 동한다는 뜻은 자신을 내어 주듯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 “**괴로워하는 자**”는 학대와 고통이 가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창 16:6 하갈이 사래에게 학대받음) 이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은 영적으로 주린 상태를 아픔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아 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가족은 서로 야단치고 고치려기 보다는 나를 내어주며(희생) 결핍과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상대의 결핍과 고통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희생을 감수하고 나를 내어 채워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영혼도 만족하게 되며 나의 뼈가 견고하게 됩니다(11 절).

그러면 앞서 본 9 절, 10 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 물 댄 동산과 같은 존재**

창조 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교통하고 순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물 댄 동산이었습니다. 이 말은 동산의 대리자 인간이 어떤 피조물과도 교류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물 댄 동산과 같이 땅 밑에서는 다른 것과 물과 양분을 나누고, 땅 위에서는 아름답게 조화하는 존재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입니다.

• 햇불트리니티 신학교 상담학 김용태 교수 저 ‘가짜 감정’과 ‘중년의 배신’

중년 남성들의 어려운 마음의 이야기를 풀어낸 흥미로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풍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 감정... 우리는 얼마나 마음과 감정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도덕적 양육을 받고, 유치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대학 대학원까지 지식을 습득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는 고도의 기능적인 수행능력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덕과 지식과 기능 수행에 관해서는 오래 배우는데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해서는 무지해서 명백한 것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 성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든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더 못합니다. 화가 나도 화났다고 말 못하고, 두려워도 두렵다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곁돌 뿐입니다.

**잠 16:32**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생각이 마음인 줄 잘못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은 생각도 아니고 지식세계도 아닙니다. 마음은 이성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의지는 감정에 많은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마음의 핵심은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참 공동체(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입니다.

내 인생에 성공과 업적이 아무리 혁혁해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느끼고 표현할 때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루어야 결국 얻은 것도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과 마음에 정직하면 본문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멩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은 결코 내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린 자, 괴로워하는 자에게 공감하는 마음의 쿠션(탄력)이 생김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과 일체를 느끼는 정직성을 배워갈 때 가족은 서로에게 물 댄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 139:23-24**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찰의 조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질문>

1. 본문 9 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멩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이 나의 삶에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나요?
2. 또한 나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또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나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감하고 공감합니까?
3.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통하는 정직성을 먼저 길러내야 할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과 감정이 내/외적으로 잘 흐르고 있어야 상대를 향해 물 댄 동산과 같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훈련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길러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가정과 목장 식구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